

부산지역과 전남 여수지역 주부들의 제례준비 및 제례의식 조사 연구

정복미 · 정해옥* · 김은실**

여수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초당대학교 조리과학부

**한림정보산업대학 관광외식조리과

A Study on Ancestral Service Preparation and Sacrificial Consciousness of Housekeepers Living in Pusan and Yeosu Area

Bok-Mi Jung, Hae-Ok Jung* and Eun-Sil Kim**

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Yosu National University, Yeosu, Korea

**Department of Culinary Art, Chodang University, Muan, Korea*

***Department of Tourism Food Service Cuisine, Hallym College, Chuncheon, Korea*

ABSTRACT

This study surveyed ancestral service preparation and sacrificial consciousness of housewives living in Pusan and Yeosu area. Statistical analysis of chi-square test was carried out by using SAS program.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In major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the forties(35.56%), Buddhism (57.79%), high school education(52.54%), a couple with children(63.45%) were the most abundant.

2. The time of sacrificial rites in both areas was usually hold from 23:00 to 01:00 (47.16%). The housewives having a job hold earlier the service than the full-time housewives($p<0.05$).

3. The range of ancestor-memorial rites was usually up to 3rd generation(34.47%). The leader of sacrificial ceremony was mainly the eldest grandson by the eldest son (78.28%) in the old subjects and a person of wealth in the young subjects($p<0.05$).

4. There were more positive answers for the necessity of a sacrificial ceremony (57.32%). Older than 50 years of subjects thought the sacrificial rites should be held(70.77%), while as the age of subjects was younger, they realized less necessity for that($p<0.05$). Sacrificial consciousness was higher in Buddhists than the other religionists($p<0.0001$). The sacrificial rites was thought to be needed for their harmonious family(50.43%). Younger subjects thought that it is necessary to succeed that as the tradition, while older housewives thought that it would contribute toward peace in their family($p<0.05$). Buddhists and Christians answered that it was good for harmonious

family, and Catholics and the others for tradition($p<0.01$). Their consideration of sacrificial rites in the future was higher in keeping the traditional practice (37.04%) and Buddhists took higher these consideration(43.17%). Considering the sacrificial consciousness, there were statistical differences among the religionists ($p<0.0001$). The eldest daughter-in-law had a different opinion about the following up the method of sacrificial ceremony from second eldest daughter-in-law and the next one($p<0.05$). The housewives in Pusan were showing more the affirmative attitudes to keep the traditional practice than those in Yeosu.

Key words : ancestral service preparation, sacrificial consciousness, Pusan and Yeosu area.

I. 서 론

관혼상제의 사례 중에서 제례란 제사 지낼 때의 절차나 예를 의미하여 제전 또는 제사라고 하였으며¹⁾, 유교사상에서 그 근원을 찾아 볼 수 있다²⁾. 제사는 인류의 원시적 미개사회에서부터 시작되어 도덕과 질서의 근본이 되어 왔으며, 사회가 형성되고 사람들의 의식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형태로 제사문화는 발달되고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제사문화에 대한 기원은 삼국시대에 비로소 자신의 조상을 제사 지내는 의례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제례는 효를 바탕으로 하는 조상공경의 정신이 깃들어 있으며, 이 정신은 현대인들에게 자가 존재에 대한 뿌리의식과 가치를 깨닫고 자신의 위치에서 맡은 바 몫을 할 수 있는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고, 자신과 가정 나아가 이웃사회의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을 배우고 도덕성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사회변화에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계승되어야 하는 전통문화인 것이다³⁾. 또한 제례는 한 조상의 후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돌아가신 선조를 생각하며, 가족간 친족간의 화목을 도모하고, 다시금 참된 가족의 중요성을 되새겨 보는 장으로서^{4~5)}, 제례문화는 우리 전통문화의 본질이자 계승해 나가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1945년 해방과 더불어 급속한 서구사회의 문화가 흡수됨으로서 산업화, 도시화가 뒤따르게 되어 많은 변화가 나타나면서⁶⁾ 정부에서는 생활의 간소화, 합리화를 위해 1969년 가정의례준칙을 제정 공포하여 유교적 제례의식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⁷⁾. 또한 제사를 지내는데 있어서 각 지역과 가정에 따라 제례의식에 따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 제례의식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서울 등 대도시나 한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남쪽에 위치하면서 해안에 인접하고 기후는 비슷하지만 동쪽과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경상지역의 부산과 전라지역의 여수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제사시간, 제기 등 제례준비에 관한 일반적 사항 및 제례의식에 관하여 경상지역과 전라지역을 비교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이를 연령, 직업, 종교 등 일반적인 요인과 지역 및 제례의식과의 사이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해안에 위치하면서 대도시에 속하는 경상지역의 부산과 역시 해안에 위치하면서 중소도시에 속하는 전라지역의 여수에 거주하는 20~50대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2003년 9월 10일부터 2003년 9월 30일까지 실시하였다.

2. 조사방법 및 자료수집

설문지는 부산과 여수 지역의 대학생들이 각 지역의 가정을 방문하여 주부들이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부산 지역 150부, 여수 지역 100부를 배부하여 250부를 회수하였고, 통계처리에 부적당한 자료를 제외한 249부를 자료로 이용하였다.

3. 조사내용

제례의식에 관한 설문지 내용은 주로 Kim & Ham(2001)⁸⁾의 설문내용에 본 연구자가 보충 첨가하여 작성하였으며, 조사내용은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사항, 제사의 필요성 및 의식, 제사시간 및 제기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였다.

4. 통계처리

본 연구에서 조사된 자료의 처리는 SAS program(Version 8.2)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연령, 성별, 종교, 가족형태, 직종별, 지역별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에 대한 유의성 검정은 χ^2 -test를 이용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일반사항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사항은 <Table 1>과 같다. 전체 연령별로 보면 40~49세가 85명으로 전체의 35.5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39세가 66명으로 27.62%와 50세 이상이 65명으로 27.20%로 비슷하였고, 20~29세가 23명으로 전체의 9.6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상자들을 종교별로 보면 불교가 141명으로 57.7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기타가 57명으로 23.36%, 기독교가 32명으로 13.11%, 가톨릭이 14명으로 5.7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으로는 고졸이 124명으로 52.5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중졸 이하가 65명으로 27.54%, 대졸이 40명으로 16.95%, 대학원 졸업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	Group	N(%)
Age (yr)	20~29	23(9.62)
	30~39	66(27.62)
	40~49	85(35.56)
	≥50	65(27.20)
Religion	Christian	32(13.11)
	Catholic	14(5.74)
	Buddhism	141(57.79)
	Others	57(23.36)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65(27.54)
	High school	124(52.54)
	College	40(16.95)
	Graduate school	7(2.97)
Family type	Husband and wife	19(7.63)
	Husband, wife and children	158(63.45)
	Husband, wife, parents and children	53(21.29)
	Others	19(7.63)
Order of a daughter-in-law	First	123(53.25)
	Second	56(24.24)
	Others	52(22.51)
Occupation	Have	112(46.67)
	None	128(53.33)
Kind of occupation	Student	7(2.88)
	Housewives	142(58.44)
	Expert official	17(7.00)
	Public service personnel	20(8.23)
	Independent enterprise	39(16.05)
	The others	18(7.41)
Region	Yeosu area	90(40.18)
	Pusan area	134(59.82)
Total		249(100.00)

7명으로 2.97%를 나타냈다. 가족구성원은 부부와 자녀가 158명으로 63.4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부와 자녀, 웃어른이 53명으로 21.29%, 부부만이 19명 7.63%, 기타가 19명 7.63%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의 며느리 순위는 만며느리가

123명으로 53.25%를 나타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둘째 며느리가 56명으로 24.24%, 기타가 52명으로 22.51%를 나타냈다. 직업의 유무에서 직업이 없다가 128명으로 53.33%, 직업이 있다가 112명으로 46.67%를 나타냈으며, 직업의 종류로는 주부가 142명으로 58.4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영업이 39명으로 16.05%, 공무원이 20명으로 8.23%, 기타 18명으로 7.41%, 전문직이 17명으로 7%, 학생이 7명으로 2.8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 지역이 134명으로 59.82%, 여수 지역이 90명으로 40.18%로 나타났다.

2. 제사 지내는 시간

부산과 여수지역 각 가정의 제사 지내는 시간에 대한 조사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전반적으로 두 지역에서 제사 지내는 시간은 23:00~01:00시에 지낸다가 47.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0:00~22:00시가 41.48%, 18:00~20:00시가 11.35%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 종교, 교육수준, 가족형태, 며느리 순서, 직업의 종류, 지역별에 따라서 제사 지내는 시간에 대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주부들이 직업의 유무에 따라서 직장에 다니는 주부들은 약간 이른 시간에 제사를 지내는 경향이었으나, 직장에 다니지 않는 주부들은 23:00~01:00시에 제사를 지내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제사 지내는 시간이 직장에 다니는 주부들에게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으며, 직장의 유무에 따라 유의성이 있었다($p<0.05$).

3. 제사에 사용되는 제기의 준비

<Table 3>은 제사에 사용되는 제기는 어떤 것을 사용하는가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전체적으로 평상시 사용하는 제기를 쓰고 있다 라고 답한 비율이 전체의 38.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물려받은 것으로 쓰고 있다가 33.91%, 새로 구입해서 쓰고 있다가 26.96%, 빌려서 쓰고 있다가 0.87%로 나타났다. 본 연구 조사에서 제기 준비는 연령, 종교, 교육 수준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사용하는 제기의 종류

조사대상자들이 제사에서 사용하는 제기의 종류에 대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전체적으로 목기가 75.41%로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다음으로 유기 13.11%, 기타 11.48%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별, 종교별, 며느리 순서, 직업, 지역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교육수준별로 보았을 때 목기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많이 사용하였으며, 유기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많이 사용하여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p<0.005$). 또한 가족형태에 따라서도 유의성이 있었다($p<0.05$).

〈Table 2〉 The time of sacrificial rites

N(%)

Variable	Group	18:00~20:00	20:00~22:00	23:00~01:00	χ^2 -value
Age (yr)	20~29	3(13.04)	13(56.52)	7(30.43)	8.76
	30~39	5(7.81)	27(42.19)	32(50.00)	
	40~49	11(13.92)	36(45.57)	32(40.51)	
	≥50	7(11.11)	19(30.16)	37(58.73)	
Religion	Christian	6(23.08)	12(46.15)	8(30.77)	12.16
	Catholic	4(28.57)	4(28.57)	6(42.86)	
	Buddhism	10(7.35)	55(40.44)	71(52.21)	
	Others	6(10.34)	26(44.83)	26(44.83)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3(4.92)	20(32.79)	38(62.30)	8.39
	High school	17(14.53)	48(41.03)	52(44.44)	
	College	5(13.16)	18(47.37)	15(39.47)	
	Graduate school	1(20.00)	2(40.00)	2(40.00)	
Family type	Husband and wife	1(5.26)	9(47.37)	9(47.37)	5.84
	Husband, wife and children	16(11.03)	61(42.07)	68(46.90)	
	Husband, wife, parents and children	6(12.00)	17(34.00)	27(54.00)	
	Others	4(21.05)	10(52.63)	5(26.32)	
Order of a daughter-in-law	First	15(11.90)	54(42.86)	57(45.24)	6.06
	Second	2(3.70)	22(40.74)	30(55.56)	N.S.
	Others	9(18.00)	20(40.00)	21(42.00)	
Occupation	Have	17(16.19)	47(44.76)	41(39.05)	5.64
	None	10(8.00)	50(40.00)	65(52.00)	$p < 0.05$
Kind of occupation	Student	1(14.29)	4(57.14)	2(28.57)	10.42
	Housewives	11(8.21)	54(40.30)	69(51.49)	
	Expert official	1(6.25)	9(56.25)	6(37.50)	
	Public service personnel	4(22.22)	8(44.44)	6(33.33)	
	Independent enterprise	6(16.22)	15(40.54)	16(43.24)	
	The others	4(25.00)	6(37.50)	6(37.50)	
Region	Yeosu area	10(12.35)	41(50.62)	30(37.04)	3.41
	Pusan area	15(11.81)	49(38.58)	63(49.61)	N.S.
Total		26(11.35)	95(41.48)	108(47.16)	

* N.S. : Not significant.

〈Table 3〉 The preparation of dishes for sacrificial rites N(%)

Variable	Group	1	2	3	4	χ^2 -value	
Age (yr)	20~29	6(26.09)	9(39.13)	1(4.35)	7(30.43)	9.65	
	30~39	23(37.10)	28(45.16)	0(0.00)	11(17.74)		
	40~49	25(30.49)	30(36.59)	1(1.22)	26(31.71)		N.S.
	≥50	24(38.10)	21(33.33)	0(0.00)	18(28.57)		
Religion	Christian	10(35.71)	15(53.57)	1(3.57)	2(7.14)	14.72	
	Catholic	4(30.77)	5(38.46)	0(0.00)	4(30.77)		
	Buddhism	40(29.41)	49(36.03)	1(0.74)	46(33.82)		N.S.
	Others	24(42.86)	21(37.50)	0(0.00)	11(19.64)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25(40.32)	15(24.19)	0(0.00)	22(35.48)	11.53	
	High school	39(33.05)	52(44.07)	2(1.69)	25(21.19)		
	College	11(29.73)	13(35.14)	0(0.00)	13(35.14)		N.S.
	Graduate school	2(33.33)	3(50.00)	0(0.00)	1(16.67)		
Family type	Husband and wife	4(22.22)	9(50.00)	0(0.00)	5(27.78)	7.63	
	Husband, wife and children	52(34.44)	58(38.41)	2(1.32)	39(25.83)		
	Husband, wife, parents and children	19(38.78)	14(28.57)	0(0.00)	16(32.65)		N.S.
	Others	3(20.00)	9(60.00)	0(0.00)	3(20.00)		
Order of a daughter-in-law	First	50(40.00)	41(32.80)	1(0.80)	33(26.40)	10.14	
	Second	19(34.55)	20(36.36)	1(1.82)	15(27.27)	N.S.	
	Others	10(19.61)	28(54.90)	0(0.00)	13(25.49)		
Occupation	Have	36(35.29)	45(44.12)	1(0.98)	20(19.61)	6.10	
	None	42(32.81)	42(32.81)	1(0.78)	43(33.59)	N.S.	
Kind of occupation	Student	2(33.33)	3(50.00)	0(0.00)	1(16.67)	16.08	
	Housewives	43(30.94)	49(35.25)	1(0.72)	46(33.09)		
	Expert official	5(31.25)	9(56.25)	0(0.00)	2(12.50)		N.S.
	Public service personnel	6(35.29)	6(35.29)	1(5.88)	4(23.53)		
	Independent enterprise	16(44.44)	12(33.33)	0(0.00)	8(22.22)		
	The others	4(26.67)	9(60.00)	0(0.00)	2(13.33)		
Region	Yeosu area	30(37.50)	33(41.25)	0(0.00)	17(21.25)	5.56	
	Pusan area	37(29.13)	44(34.35)	1(0.79)	45(35.43)	N.S.	
Total		78(33.91)	88(38.26)	2(0.87)	62(26.96)		

* N.S. : Not significant.

1. Inherit, 2. Used, 3. Lend, 4. Purchasing.

〈Table 4〉 The kind of dishes used in sacrificial rites

N(%)

Variable	Group	Wood	Brassware	Others	χ^2 -value
Age (yr)	20~29	20(83.33)	4(16.67)	0(0.00)	9.17
	30~39	49(71.01)	7(10.14)	13(18.84)	
	40~49	64(74.42)	11(12.79)	11(12.79)	
	≥50	51(78.46)	10(15.38)	4(6.15)	
Religion	Christian	21(63.64)	5(15.15)	7(21.21)	23.73
	Catholic	6(40.00)	3(20.00)	6(40.00)	
	Buddhism	117(83.57)	55(40.44)	71(52.21)	
	Others	41(69.49)	10(16.95)	8(13.56)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58(89.23)	6(9.23)	1(1.54)	20.25
	High school	92(74.80)	14(11.38)	17(13.82)	
	College	25(64.10)	7(17.95)	7(17.95)	
	Graduate school	2(28.57)	3(42.86)	2(28.57)	
Family type	Husband and wife	17(89.47)	2(10.53)	0(0.00)	12.46
	Husband, wife and children	114(72.61)	22(14.01)	21(13.38)	
	Husband, wife, parents and children	45(86.54)	3(5.77)	4(7.69)	
	Others	10(52.63)	5(26.32)	4(21.05)	
Order of a daughter-in-law	First	102(77.27)	17(12.88)	13(9.85)	3.47
	Second	46(77.97)	7(11.86)	6(10.17)	N.S.
	Others	36(66.67)	8(14.71)	10(18.52)	
Occupation	Have	80(70.80)	15(13.27)	18(15.93)	4.24
	None	104(79.39)	17(12.98)	10(7.63)	N.S.
Kind of occupation	Student	7(100.00)	0(0.00)	0(0.00)	13.13
	Housewives	111(77.62)	20(13.99)	12(8.39)	
	Expert official	10(58.82)	4(23.53)	3(17.65)	
	Public service personnel	13(65.00)	4(20.00)	3(15.00)	
	Independent enterprise	30(76.92)	3(7.69)	6(15.38)	
	The others	11(61.11)	2(11.11)	5(27.78)	
Region	Yeosu area	66(74.16)	12(13.48)	11(12.36)	0.39
	Pusan area	102(77.27)	17(12.88)	13(9.85)	N.S.
Total		184(75.41)	32(13.11)	28(11.48)	

* N.S. : Not significant.

5. 기제사 지내는 범위

〈Table 5〉는 각 가정에서 기제사는 몇 대까지 지내는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전반적으로 3대가 34.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대가 29.79%, 부모가 22.13%, 4대가 11.06%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 종교, 교육수준, 며느리 순서와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나 가족형태, 직업, 직업의 종류, 지역과는 유의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6. 제사 지내는 사람

각 가정에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조사결과는 〈Table 6〉에 제시되었다. 장남이 지낸다가 전체의 78.28%로 가장 높았고, 기타가 11.48%, 아들과 딸이 돌아가면서 지내거나 아들끼리 돌아가면서 지낸다가 각각 3.69%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자식이 지낸다가 2.87%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별로 볼 때 연령이 높음에 따라 장남이 제사를 지내는 비율이 높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 제사를 지내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연령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p < 0.05$), 며느리의 순위에서는 역시 맏며느리가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둘째, 셋째로 갈수록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자녀가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높아서 며느리의 순위에 따라 유의성이 있었다($p < 0.01$). 그 외 종교, 교육수준, 가족형태, 직업, 지역에 따른 유의성은 없었다.

7. 제사 지내는 것을 배우는 대상

제사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 배우는 대상은 〈Table 7〉에 나타내었으며, 전체적으로 결혼 전에는 부모님에게 배우다가 43.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결혼 후에는 시부모님에게 배우는 39.59%, 집안의 지체 높고 덕망 있는 분에게 배우는 6.94%, 남편에게 배우는 5.71%, 기타 4.49%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 전에는 부모님과, 결혼 후에는 시부모님께 배우는다고 하였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집안의 지체 높고 덕망 있는 분이나 남편에게 배우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으로 유의성이 있었다($p < 0.05$). 며느리의 순위에서는 맏며느리의 경우 결혼 후에는 시부모님에게 배우는 비율이 높았으며, 둘째 이하로 내려갈수록 집안의 덕망 있는 어른에게 배우는 것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 < 0.01$). 직업의 종류에서는 직장을 가진 주부들에 비해 직장이 없는 주부들이 결혼 전에 부모님께 배우는 비율이 높았고, 공무원의 경우 집안의 덕망 있는 어른에게 배우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p < 0.0001$). 지역적으로 보면 부산 지역의 주부들은 45.11%, 여수 지역의 주부들은 38.20%가 결혼 전에는 친정 부모님께 배웠으며, 결혼 후에는 시부모님께 배우는 비율은 여수 지역이 41.57%, 부산 지역이 39.85%로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 < 0.05$). Kim & Ham(2001)⁸⁾은 춘천 지역 주부들을 조사한 결과 52.4%가 결혼

〈Table 5〉 The range of ancestor-memorial rites

N(%)

Variable	Group	1	2	3	4	5	χ^2 -value
Age (yr)	20~29	1(4.35)	12(52.17)	7(30.43)	3(13.04)	0(0.00)	24.97 $p<0.05$
	30~39	6(9.23)	24(36.92)	14(21.54)	15(23.08)	11(17.74)	
	40~49	13(15.48)	23(27.38)	28(33.33)	20(23.81)	0(0.00)	
	≥50	6(9.52)	22(34.92)	21(33.33)	14(22.22)	0(0.00)	
Religion	Christian	2(6.06)	9(27.27)	11(33.33)	6(18.18)	5(15.15)	36.39 $p<0.001$
	Catholic	3(21.43)	2(14.29)	8(57.14)	1(7.14)	0(0.00)	
	Buddhism	15(11.03)	50(36.76)	41(30.15)	29(21.32)	1(0.74)	
	Others	6(10.91)	22(40.00)	12(21.82)	15(27.27)	0(0.00)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8(12.90)	18(29.03)	16(25.81)	20(32.26)	0(0.00)	22.14 $p<0.05$
	High school	14(11.67)	46(38.33)	33(27.50)	23(19.17)	4(3.33)	
	College	1(2.63)	14(36.84)	18(47.37)	3(7.89)	2(5.26)	
	Graduate school	2(33.33)	1(16.67)	1(16.67)	2(33.33)	0(0.00)	
Family type	Husband and wife	1(5.26)	4(21.05)	10(52.63)	4(21.05)	0(0.00)	10.46 N.S.
	Husband, wife and children	20(13.51)	51(34.46)	40(27.03)	33(22.30)	4(2.70)	
	Husband, wife, parents and children	5(9.62)	20(38.46)	15(28.85)	10(19.23)	2(3.85)	
	Others	0(0.00)	86(44.44)	6(33.33)	4(22.22)	0(0.00)	
Order of a daughter-in-law	First	8(6.20)	45(34.88)	46(35.66)	25(19.38)	5(3.88)	18.99 $p<0.05$
	Second	12(21.43)	20(35.71)	14(25.00)	10(17.86)	0(0.00)	
	Others	3(5.88)	18(35.29)	12(23.53)	17(33.33)	1(1.96)	
Occupation	Have	16(14.55)	40(36.36)	30(27.27)	21(19.09)	3(2.73)	3.91
	None	10(8.06)	40(32.26)	40(32.26)	31(25.00)	3(2.42)	N.S.
Kind of occupation	Student	1(14.29)	4(57.14)	2(28.57)	0(0.00)	0(0.00)	20.16 N.S.
	Housewives	13(9.63)	41(30.37)	45(33.33)	33(24.44)	3(2.22)	
	Expert official	1(5.88)	11(64.71)	3(17.65)	2(11.76)	0(0.00)	
	Public service personnel	2(10.00)	6(30.00)	7(35.00)	3(15.00)	2(10.00)	
	Independent enterprise	5(13.51)	15(40.54)	7(18.92)	9(24.32)	1(2.70)	
	The others	3(16.67)	5(27.78)	6(33.33)	4(22.22)	0(0.00)	
Region	Yeosu area	8(9.41)	33(38.82)	21(24.71)	19(22.35)	4(4.71)	2.89
	Pusan area	15(11.81)	43(33.86)	38(29.92)	29(22.83)	2(1.57)	N.S.
	Total	26(11.06)	81(34.47)	70(29.79)	52(22.13)	6(2.55)	

* N.S. : Not significant.

1. Fourth, 2. Third, 3. Second, 4. Parents, 5. not perform.

<Table 6> The person perform sacrificial rites N(%)

Variable	Group	1	2	3	4	5	χ^2 -value
Age (yr)	20~29	1(4.35)	0(0.00)	17(73.91)	3(13.04)	2(8.70)	22.27 $p < 0.05$
	30~39	1(1.45)	4(5.80)	57(82.61)	2(2.90)	5(7.25)	
	40~49	3(3.49)	3(3.49)	62(72.09)	1(1.16)	17(19.77)	
	≥50	4(6.06)	2(3.03)	55(83.33)	1(1.52)	4(6.06)	
Religion	Christian	2(5.88)	1(2.94)	23(67.65)	1(2.94)	7(20.59)	12.43 N.S.
	Catholic	1(7.14)	0(0.00)	10(71.43)	0(0.00)	3(21.43)	
	Buddhism	6(4.26)	7(4.96)	113(80.14)	3(2.13)	12(8.51)	
	Others	0(0.00)	1(1.72)	48(82.76)	3(5.17)	6(10.34)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2(3.08)	4(6.15)	49(75.38)	2(3.08)	8(12.31)	6.70 N.S.
	High school	7(5.69)	3(2.44)	99(80.49)	3(2.44)	11(8.94)	
	College	0(0.00)	2(5.00)	31(77.50)	2(5.00)	5(12.50)	
	Graduate school	0(0.00)	0(0.00)	5(83.33)	0(0.00)	1(16.67)	
Family type	Husband and wife	2(10.53)	0(0.00)	16(84.21)	1(5.26)	0(0.00)	17.58 N.S.
	Husband, wife and children	6(3.85)	6(3.85)	117(75.00)	4(2.56)	23(14.74)	
	Husband, wife, parents and children	1(1.89)	3(5.66)	46(86.79)	0(0.00)	3(5.66)	
	Others	0(0.00)	0(0.00)	15(78.95)	2(10.53)	2(10.53)	
Order of a daughter-in-law	First	5(3.79)	6(4.55)	113(85.61)	0(0.00)	8(6.06)	22.86 $p < 0.01$
	Second	2(3.45)	1(1.72)	44(75.86)	2(3.45)	9(15.52)	
	Others	2(3.64)	2(3.64)	36(65.45)	5(9.09)	10(18.18)	
Occupation	Have	5(4.42)	6(5.31)	85(75.22)	2(1.77)	15(13.27)	4.76 N.S.
	None	4(3.05)	2(1.53)	107(81.68)	5(3.82)	13(9.92)	
Kind of occupation	Student	0(0.00)	0(0.00)	5(71.43)	0(0.00)	2(28.57)	10.22 N.S.
	Housewives	5(3.52)	6(4.23)	111(78.17)	5(3.52)	15(10.56)	
	Expert official	1(5.88)	0(0.00)	14(82.35)	1(5.88)	1(5.88)	
	Public service personnel	2(10.00)	1(5.00)	14(70.00)	0(0.00)	3(15.00)	
	Independent enterprise	1(2.56)	1(2.56)	32(82.05)	1(2.56)	4(10.26)	
	The others	0(0.00)	1(5.56)	14(77.78)	0(0.00)	3(16.67)	
Region	Yeosu area	2(2.27)	3(3.41)	71(80.68)	3(3.41)	9(10.23)	0.55 N.S.
	Pusan area	3(2.26)	6(4.51)	103(77.44)	4(3.01)	17(12.78)	
	Total	9(3.69)	9(3.69)	191(78.28)	7(2.87)	28(11.48)	

* N.S. : Not significant.

1. The son after the daughter, 2. Change off sons, 3. The eldest son, 4. The rich man, 5. Others.

<Table 7> The person influenced in the preparation of sacrificial rites N(%)

Variable	Group	1	2	3	4	5	χ^2 -value
Age (yr)	20~29	10(41.67)	3(12.50)	4(16.67)	3(12.50)	4(16.67)	25.26 $p < 0.05$
	30~39	29(42.03)	29(42.03)	6(8.70)	2(2.90)	3(4.35)	
	40~49	37(43.02)	40(46.51)	3(3.49)	3(3.49)	3(3.49)	
	≥50	30(45.45)	25(37.88)	4(6.06)	6(9.09)	1(1.52)	
Religion	Christian	10(29.41)	15(44.12)	4(11.76)	2(5.88)	3(8.82)	12.53 N.S.
	Catholic	9(60.00)	4(26.67)	1(6.67)	0(0.00)	1(6.67)	
	Buddhism	69(49.29)	51(36.43)	9(6.43)	8(5.71)	3(2.14)	
	Others	21(35.59)	28(47.46)	3(5.08)	4(6.78)	3(5.08)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35(53.85)	24(36.92)	2(3.08)	3(4.62)	1(1.54)	7.53 N.S.
	High school	52(42.28)	53(43.09)	8(6.50)	7(5.69)	3(2.44)	
	College	18(45.00)	14(35.00)	4(10.00)	2(5.00)	2(5.00)	
	Graduate school	2(28.57)	3(42.86)	1(14.29)	1(14.29)	0(0.00)	
Family type	Husband and wife	10(52.63)	6(31.58)	2(10.53)	1(5.26)	0(0.00)	14.59 N.S.
	Husband, wife and children	71(44.94)	64(40.51)	10(6.33)	8(5.06)	5(3.16)	
	Husband, wife, parents and children	21(40.38)	23(44.23)	1(1.92)	4(7.69)	3(5.77)	
	Others	8(42.11)	4(21.05)	4(21.05)	1(5.26)	2(10.53)	
Order of a daughter-in-law	First	57(43.18)	60(45.45)	4(3.03)	8(6.06)	3(2.27)	19.83 $p < 0.01$
	Second	32(54.24)	19(32.20)	4(6.78)	2(3.39)	2(3.39)	
	Others	20(36.36)	18(32.73)	9(16.36)	3(5.45)	5(9.09)	
Occupation	Have	46(41.07)	43(38.39)	9(8.04)	7(6.25)	7(6.25)	2.32 N.S.
	None	62(46.62)	52(39.10)	8(6.02)	7(5.26)	4(3.01)	
Kind of occupation	Student	0(0.00)	1(14.29)	2(28.57)	1(14.29)	3(42.86)	56.97 $p < 0.0001$
	Housewives	73(50.69)	53(36.81)	8(5.56)	7(4.86)	3(2.08)	
	Expert official	8(47.06)	6(35.21)	1(5.88)	1(5.88)	1(5.88)	
	Public service personnel	2(10.00)	1(5.00)	14(70.00)	0(0.00)	3(15.00)	
	Independent enterprise	7(35.00)	6(30.00)	2(10.00)	2(10.00)	3(15.00)	
	The others	14(35.90)	23(58.97)	2(5.13)	0(0.00)	0(0.00)	
Region	Yeosu area	34(38.20)	37(41.57)	5(5.62)	4(4.49)	9(10.11)	9.13 $p < 0.05$
	Pusan area	60(45.11)	53(39.85)	10(7.52)	8(6.02)	2(1.50)	
Total		106(43.27)	97(39.59)	17(6.94)	14(5.71)	11(4.49)	

* N.S. : Not significant/

1. My parents before marriage, 2. My parents-in-law after marriage, 3. Respected person in our family, 4. Husband, 5. Others.

전에는 친정 부모님에게 배웠고, 39%는 결혼 후에는 시부모님께 배웠다고 보고하였고, Park(1998)⁹⁾은 대상자의 48.9%가 결혼 전에는 친정 부모님에게, 26.0%는 결혼 후에는 시부모님께 배웠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8. 제사의 필요성

제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조사대상자들의 연령 등 여러 가지 요인들과의 차이를 나타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사가 꼭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57.3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그저 그렇다는 29.29%, 필요 없다고 답한 비율은 7.11%, 잘 모르겠다가 6.28%를 나타내었다. 연령별로 보았을 때 50세 이상이 꼭 지나야 한다 라고 답한 비율이 70.7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40대, 30대, 20대 순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제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연령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p < 0.05$). 종교적으로 보았을 때 불교에서 73.05%가 제사를 꼭 지나야 한다 라고 답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기타, 가톨릭, 기독교 순으로 나타나 종교에 따라서도 유의적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p < 0.0001$). 교육수준별로 보면 중졸 이하에서 필요하다 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가족 구성원에 있어서도 부부와 웃어른, 자녀로 구성된 경우가 69.81%로 제사가 꼭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69.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역시 가족 형태별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 집안에서 며느리의 순위로 보았을 때 만며느리들이 제사가 꼭 필요하다 라고 답한 비율이 58.78%로 약간 높긴 하였으나 둘째 이하 며느리들은 57.89%, 57.69%로 각각 응답하여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직장의 유무에서 직장이 있는 주부들의 61.61%가 직장이 없는 주부들의 53.91%가 제사가 필요하다고 답하여 직장을 가진 주부들에 비하여 직장이 없는 주부들이 오히려 제사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률이 낮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으나, 직장의 유무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직업의 종류에서는 자영업, 전문직, 주부, 공무원의 순으로 제사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지역별로 보았을 때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주부들이 여수 지역 주부들에 비해 제사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성이 없었다. Kim & Ham(2001)⁸⁾의 춘천 지역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령이 높고, 종교가 불교에서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으나 전체적으로 꼭 필요하다는 비율이 45%, 그저 그렇다가 42%로 나타나 북부지역에 비하여 남부지역에 거주하는 주부들이 제사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률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Ahn & Park(2001)³⁾의 한국 주부의 제례 의식 조사에서도 도시와 시골에 거주하는 주부들 모두 제례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현대인의 바쁜 생활속에서도 한국 주부들의 제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Table 8〉 The necessity of sacrificial rites

N(%)

Variable	Group	1	2	3	4	χ^2 -value
Age (yr)	20~29	7(30.43)	10(43.48)	2(8.70)	4(17.39)	17.08 <i>p</i> <0.05
	30~39	35(53.03)	20(30.30)	7(10.61)	4(6.06)	
	40~49	49(57.65)	26(30.59)	4(4.71)	6(7.06)	
	≥50	46(70.77)	14(21.54)	4(6.15)	1(1.54)	
Religion	Christian	7(21.88)	12(37.50)	11(34.38)	2(6.25)	69.41 <i>p</i> <0.0001
	Catholic	6(42.86)	7(50.00)	0(0.00)	1(7.14)	
	Buddhism	103(73.05)	25(17.73)	4(2.84)	9(6.38)	
	Others	26(45.61)	26(45.61)	2(3.51)	3(5.26)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43(66.15)	14(21.54)	6(9.23)	2(3.08)	6.17 N.S.*
	High school	66(54.55)	40(33.06)	7(5.79)	8(6.61)	
	College	21(53.85)	12(30.77)	3(7.69)	3(7.69)	
	Graduate school	3(50.00)	2(33.33)	1(16.67)	0(0.00)	
Family type	Husband and wife	10(55.56)	5(27.78)	2(11.11)	1(5.56)	6.41 N.S.
	Husband, wife and children	83(53.90)	48(31.17)	13(8.44)	10(6.49)	
	Husband, wife, parents and children	37(69.81)	11(20.75)	2(3.77)	3(5.66)	
	Others	11(61.11)	6(33.33)	0(0.00)	1(5.56)	
Order of a daughter-in-law	First	77(58.78)	36(27.48)	10(7.63)	8(6.11)	1.47
	Second	33(57.89)	16(28.07)	5(8.77)	3(5.26)	N.S.
	Others	30(57.69)	16(30.77)	2(3.85)	4(7.69)	
Occupation	Have	69(61.61)	33(29.46)	6(5.36)	4(3.57)	3.92
	None	69(53.91)	37(28.91)	11(8.59)	11(8.59)	N.S.
Kind of occupation	Student	2(33.33)	2(33.33)	0(0.00)	2(33.33)	18.10 N.S.
	Housewives	77(55.40)	40(28.78)	10(7.19)	12(8.63)	
	Expert official	11(64.71)	5(29.41)	1(5.88)	0(0.00)	
	Public service personnel	11(55.00)	8(40.00)	1(5.00)	0(0.00)	
	Independent enterprise	28(71.79)	8(20.51)	2(5.13)	1(2.56)	
	The others	9(52.94)	7(41.18)	1(5.88)	0(0.00)	
Region	Yeosu area	42(48.84)	31(36.05)	6(6.98)	7(8.14)	5.71
	Pusan area	85(64.39)	31(23.48)	9(6.82)	7(5.30)	N.S.
Total		137(57.32)	70(29.29)	17(7.11)	15(6.28)	

* N.S. : Not significant.

1. Necessary, 2. Sometimes as needed, 3. Not necessary, 4. I don't think about ancestral rites.

이 아직까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9. 제사에 대한 생각

〈Table 9〉는 제사에 대한 주부들의 생각에 대한 질문의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전반적으로 제사는 가족의 화목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0.4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우리의 전통문화로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1.30%, 귀찮지만 지내야 한다가 14.35%, 귀찮아서 지내지 않아야 한다가 3.91%로 각각 나타났다. 이를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우리의 전통이니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응답률이 높은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가족의 화목도모에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 연령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p < 0.05$). 종교별로 보면 가톨릭과 기타에서 가족의 화목도모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난 반면 불교와 기독교는 계승발전에 대한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나 종교에 따른 유의성을 나타내었다($p < 0.01$). 교육수준별로 보면 모든 학력에서 가족의 화목도모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고, 중졸 이하와 대졸에서는 계승 발전에 대한 응답률이 다른 교육수준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고,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성이 있었다($p < 0.05$). 지역별로 보면 가족의 화목도모에 대한 응답률이 두 지역에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계승 발전에 대한 응답률은 부산지역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귀찮지만 지내야 한다가 여수 지역에서 더 높은 반면 귀찮아서 지내지 않아야 한다는 대도시 지역인 부산 지역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에 따른 유의성이 있었다($p < 0.05$). 제례의식에 대한 연구에서 Kim (1997)⁴⁾의 서울 지역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제사가 친척 도모 및 회연의 기능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Huh(1987)¹⁰⁾의 대구 주부의 친척간의 화목에 대한 의식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본 연구 결과는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세월이 지나도 지역에 관계없이 조상을 모시는 제사를 통하여 가족간의 화목을 도모하는 점을 중요시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10. 미래의 제사에 대한 생각

〈Table 10〉은 앞으로 제사에 대한 주부들의 생각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전반적으로 대상자들의 37.04%가 내려오는 법도에 따르겠다고 답하였고, 35.39%는 본인 나름대로 정성껏 모시겠다고 답하였으며, 9.47%는 가정의례준칙에 따라 행하겠다고 하였으며, 7.41%는 어른이 생존하실 동안 하시는 대로 하겠다고 하였으며, 5.35%는 어른이 생존하신 중이라도 차차 추도식 형태로 바꾸겠다고 하였으며, 5.35%는 종교 때문에 예배드린다고 답하였다. 종교적으로 살펴보면 불교에서 43.17%가 내려오는 법도에 따르겠다고 하였으며, 기독교의 경우 26.47%는 예배드린다고 하였고, 기독교의 경우 현재 어른이 생존하신 중이라도 차차 추도식 형태로 바꾸겠다고 답하였으며, 가톨릭, 불교, 기타에서는 나름대로 정성껏 모신다의 비율이 기독교에 비해 높게

〈Table 9〉 Consciousness about sacrificial rites

N(%)

Variable	Group	1	2	3	4	χ^2 -value
Age (yr)	20~29	9(39.13)	6(26.09)	5(21.74)	3(13.04)	19.47 $p < 0.05$
	30~39	19(30.16)	30(47.62)	9(14.29)	5(7.94)	
	40~49	20(24.69)	49(60.49)	11(13.58)	1(1.23)	
	≥50	24(38.10)	31(49.21)	8(12.70)	0(0.00)	
Religion	Christian	7(26.92)	8(30.77)	7(26.92)	4(15.38)	21.87 $p < 0.01$
	Catholic	3(21.43)	8(57.14)	2(14.29)	1(7.14)	
	Buddhism	51(37.78)	67(49.63)	15(11.11)	2(1.48)	
	Others	13(22.41)	33(56.90)	10(17.24)	2(3.45)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24(38.71)	27(43.55)	11(17.74)	0(0.00)	17.03 $p < 0.05$
	High school	34(29.57)	60(52.17)	18(15.65)	3(2.61)	
	College	12(31.58)	20(52.63)	2(5.26)	4(0.53)	
	Graduate school	1(16.67)	2(33.33)	2(33.33)	1(6.67)	
Family type	Husband and wife	9(50.00)	8(44.44)	1(5.56)	0(0.00)	9.21 N.S.*
	Husband, wife and children	41(27.89)	79(53.74)	20(13.61)	7(4.76)	
	Husband, wife, parents and children	20(39.22)	21(41.18)	9(17.65)	1(1.96)	
	Others	4(23.53)	8(47.06)	4(23.53)	1(5.88)	
Order of a daughter-in-law	First	42(34.15)	58(47.15)	18(14.63)	5(4.07)	9.78
	Second	23(41.07)	23(41.07)	8(14.29)	2(3.57)	N.S.
	Others	8(15.38)	34(65.38)	8(15.38)	2(3.85)	
Occupation	Have	39(36.11)	51(47.22)	15(13.89)	3(2.78)	1.91
	None	35(28.69)	63(51.64)	18(14.75)	6(4.92)	N.S.
Kind of occupation	Student	2(28.57)	4(57.14)	0(0.00)	1(14.29)	13.26 N.S.
	Housewives	39(29.32)	67(50.38)	21(15.79)	6(4.51)	
	Expert official	9(52.94)	5(29.41)	2(11.76)	1(5.88)	
	Public service personnel	4(21.05)	11(57.89)	4(21.05)	0(0.00)	
	Independent enterprise	12(30.77)	21(53.85)	6(15.38)	0(0.00)	
	The others	5(35.71)	8(57.14)	1(7.14)	0(0.00)	
Region	Yeosu area	23(28.75)	40(50.00)	17(21.25)	0(0.00)	10.83 $p < 0.05$
	Pusan area	45(35.43)	64(50.39)	11(8.66)	7(5.51)	
	Total	72(31.30)	116(50.43)	33(14.35)	9(3.91)	

* N.S. : Not significant.

1. Inherit, 2. Be friendly with family, 3. Annoying but perform, 4. Annoying and must not be perform.

<Table 10> The arrangement style of sacrificial rites

N(%)

Variable	Group	1	2	3	4	5	6	χ^2 -value
Age (yr)	20~29	7(30.43)	3(13.04)	0(0.00)	3(13.04)	9(39.13)	1(4.35)	16.61 N.S.*
	30~39	26(37.68)	5(7.25)	5(7.25)	3(4.35)	24(34.78)	6(8.70)	
	40~49	30(35.29)	10(11.76)	5(5.88)	10(11.76)	28(32.94)	2(2.35)	
	≥50	27(40.91)	0(0.00)	3(4.55)	7(10.61)	25(37.88)	4(6.06)	
Religion	Christian	7(20.59)	5(14.71)	7(20.59)	1(2.94)	5(14.71)	9(26.47)	67.34 $p < 0.0001$
	Catholic	4(26.67)	1(6.67)	1(6.67)	2(13.33)	6(40.00)	1(6.67)	
	Buddhism	60(43.17)	8(5.76)	3(2.16)	13(9.35)	53(38.13)	2(1.44)	
	Others	20(34.48)	4(6.90)	2(3.45)	8(13.79)	23(39.66)	1(1.72)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28(43.75)	2(3.13)	1(1.56)	4(6.25)	26(40.63)	3(4.69)	18.15 N.S.
	High school	45(36.59)	13(10.57)	8(6.50)	11(8.94)	39(31.71)	7(5.69)	
	College	12(30.00)	3(7.50)	3(7.50)	8(20.00)	11(27.50)	3(7.50)	
	Graduate school	4(66.67)	0(0.00)	1(16.67)	0(0.00)	1(16.67)	0(0.00)	
Family type	Husband and wife	8(42.11)	0(0.00)	1(16.67)	3(15.79)	5(26.32)	2(10.53)	21.14 N.S.
	Husband, wife and children	56(35.90)	12(7.69)	1(5.26)	4(2.56)	23(14.74)	9(5.77)	
	Husband, wife, parents and children	25(45.08)	6(11.54)	9(5.77)	0(0.00)	3(5.66)	1(1.92)	
	Others	3(15.79)	0(0.00)	3(5.77)	2(10.53)	2(10.53)	1(5.26)	
Order of a daughter-in-law	First	48(36.36)	10(7.58)	7(5.30)	12(9.09)	48(36.36)	7(5.30)	20.91 $p = 0.05$
	Second	29(50.88)	6(10.53)	0(0.00)	1(1.75)	18(31.58)	3(5.26)	
	Others	13(23.64)	2(3.64)	6(10.91)	9(16.36)	22(40.00)	3(5.45)	
Occupation	Have	42(37.84)	11(9.91)	6(5.41)	12(10.81)	34(30.63)	6(5.41)	3.46 N.S.
	None	48(36.36)	7(5.30)	7(5.30)	11(8.33)	13(9.92)	7(5.30)	
Kind of occupation	Student	1(14.29)	0(0.00)	0(0.00)	1(14.29)	5(71.43)	0(0.00)	36.38 N.S.
	Housewives	56(39.44)	6(4.23)	6(4.23)	11(7.75)	56(39.44)	7(4.93)	
	Expert official	6(35.29)	3(17.65)	1(5.88)	4(23.53)	2(11.76)	1(5.88)	
	Public service personnel	8(42.11)	2(10.53)	2(10.53)	3(15.79)	1(5.26)	3(15.79)	
	Independent enterprise	14(35.90)	3(7.69)	3(7.69)	2(5.13)	17(43.59)	0(0.00)	
	The others	5(27.78)	3(16.67)	1(5.56)	2(11.11)	5(27.78)	2(11.11)	
Region	Yeosu area	27(30.68)	9(10.23)	8(9.09)	8(9.09)	25(28.41)	11(12.50)	18.53 $p < 0.01$
	Pusan area	54(40.91)	8(6.06)	4(3.03)	14(10.61)	50(37.88)	2(1.52)	
Total		90(37.04)	18(7.41)	13(5.35)	23(9.47)	86(35.39)	13(5.35)	

* N.S. : Not significant.

1. To keep the family's traditional practice, 2. To keep the service while my parents are alive, 3. To change in christian style live, 4. To follow the family rule recommended by government, 5. To service ancestral rites in my opinion, 6. perform christian style.

나타나 종교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p < 0.0001$). 며느리의 순위에서는 맏며느리에 비해 둘째 며느리는 내려오는 범도에 따르거나 어른이 하시는 대로 하겠다고 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는데 비해 맏며느리는 나름대로 정성껏 모시겠다고 한 점으로 며느리의 순위에 따라 미래의 제사에 대한 생각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 < 0.05$). 지역적으로 보면 부산 지역이 여수 지역에 비해 범도에 따르거나 나름대로 정성껏 모시겠다고 하는 비율이 더 높은 반면, 여수 지역은 부산 지역에 비해 차차 추도식 형태로 바꾸거나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 지역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여수 지역이 손양원 목사의 순교 지역으로 부산 지역과 비교하여 영구에 비하여 교회수가 많으므로 기독교 신자들이 많아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IV. 요약

본 연구는 부산과 여수 지역 주부들을 대상으로 제사시간, 제기 등 제례준비에 관한 일반적 사항 및 제례의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으로 연령은 40~49세가 35.56%, 불교가 57.79%로 가장 높았고, 고졸이 52.54%, 가족구성원은 부부와 자녀가 63.45%로 가장 높았다. 며느리 순위는 맏며느리가 53.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의 유무에서 직업이 없다가 53.33%, 직업의 종류로는 주부가 58.44%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부산 지역이 59.82%, 여수 지역이 40.18%로 나타났다.
2. 두 지역 모두 제사 지내는 시간은 23:00~01:00시에 지낸다가 47.16%로 가장 높았고, 직장에 다니는 주부들은 약간 이른 시간에 제사를 지내는 경향이었으나, 직장에 다니지 않는 주부들은 아주 늦은 시간에 제사를 지내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직장의 유무에 따라 유의성이 있었다($p < 0.05$).
3. 기제사의 범위는 3대가 34.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사는 장남이 지낸다가 78.28%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이 높음에 따라 장남이 제사를 지내는 비율이 높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 제사를 지내는 비율이 높아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p < 0.05$).
4. 제례의식에 대한 결과에서 제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꼭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57.32%로 가장 높았고, 연령별로 50세 이상이 꼭 지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70.7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연령이 낮을수록 제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p < 0.05$). 불교가 타종교에 비해 제사를 꼭 지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종교별 차이가 있었다($p < 0.0001$). 또한 제사는 가족의 화목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50.43%로 가장 높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우리의 전통이니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응답률이 높은 반면, 연

령이 높을수록 가족의 화목도모에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 연령에 따라 유의성이 있었다($p<0.05$). 가톨릭과 기타 종교에서 가족의 화목도모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난 반면 불교와 기독교는 계승 발전에 대한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나 종교에 따른 유의성을 나타내었다($p<0.01$). 미래의 제사에 대한 생각은 대상자들의 37.04%가 내려오는 법도에 따르겠다고 하여 가장 높았고, 불교에서 43.17%가 내려오는 법도에 따르겠다, 기독교의 경우 26.47%는 예배드린다, 기독교의 경우 현재 어른이 생존하신 중이라도 차차 추도식 형태로 바꾸겠다고 답하였으며, 가톨릭, 불교, 기타에서는 나름대로 정성껏 모신다의 비율이 기독교에 비해 높게 나타나 종교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p<0.0001$). 또한 맏며느리에 비해 둘째 며느리는 내려오는 법도에 따르거나 어른이 하시는 대로 하겠다고 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는데 비해 맏며느리는 나름대로 정성껏 모시겠다고 한 점으로 며느리의 순위에 따라 미래의 제사에 대한 생각에 유의성이 있었다($p<0.05$). 지역적으로 보면 부산 지역이 여수 지역에 비해 법도에 따르거나 나름대로 정성껏 모시겠다는 비율이 더 높은 반면, 여수 지역은 부산 지역에 비해 차차 추도식 형태로 바꾸거나 예배 드리겠다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 지역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참고문헌

1. Huh SM, Han JS (1996): The study of the traditional rites. *The East Asian Society of Dietary Life* 6: 411-423.
2. Kim DH (1975): Modern family. Eul Suh Mun Hwa Sa, Seoul.
3. Ahn SJ, Park KR (2001): A study on sacrificial consciousness of Korean housekeepers. *Chung-Ang Journal of Human Ecology* 14: 49-68.
4. Kim IO (1997): The Study on the Korean Traditional Religious Ceremonies in Cultural Life and Empirical Researches on Contemporary Ceremonies. *M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Korea.
5. Park JS (1999): Urban Housewives' Way of Thinking in Relation to the Ancestor Worship Rite. *MS Thesis*, Dankook University, Korea.
6. Lee OJ (1981) : Family relations theory. Suhak Co, Seoul.
7. Hong HJ (1986): A Study on Value Orientation of Ancestor Worship Ritual. *MS Thesis*, Keimyung University, Korea.
8. Kim ES, Ham SS (2001) : The survey on the practice of ancestral service food in chuncheon area. *J East Asian Soc Dietary Life* 11: 235-246.
9. Park MN (1998): The study for dietary culture of east coast area in Kyungpook

- province. *MA Thesis*, Education Graduate School, Andong University, Korea.
10. Huh SM (1987): The Concept and Vies of Urban Housewives on Ancestor Worship
- Centering on Daegu Area -. *MS Thesis*, Yeungnam University, Daegue, Korea.
-

(접수일: 2004년 8월 7일 / 채택일: 2004년 9월 15일)